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7/19(月)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7/18(日) 12:00부터

※ 문의 : 구주통상팀 추정화 팀장(02-6050-3541), 용정화 과장(02-6050-3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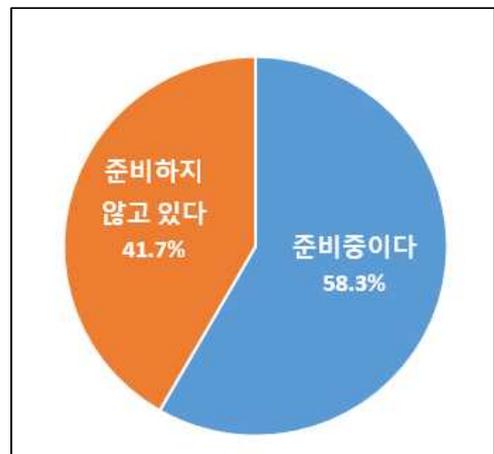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수출기업 10곳 중 6곳, '해외진출전략 변화 모색'

- 商議,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 대상 조사 ... 기업 58%, “해외진출전략 다변화 준비중”
- 진출전략으로 ‘지역 다변화’(55%), ‘관리방식 비대면화’(43%), ‘마케팅 다변화’(33%) 順 고려
- 진출지역은 미주, 동남아, 유럽, 중국 順 선호 ... 국가간 이동제한에 ‘지리적 편의성’ 개념 변화
- 코로나 회복 시기 : ‘1년내’(45%), ‘2년내’(36%), ‘3년내’(10%), ‘6개월내’(8%) 순
- 지원정책 : ‘금융지원’(36%), ‘자가격리면제 등 출입국 우대’(34%), ‘정보 제공’(30%) 등 요청

코로나19 여파가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 상당수가 기존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진출지역에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해외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후 GVC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수출기업 300개사(해외투자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이후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대응과제’ 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58.3%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해외진출 전략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진출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 다변화(54.9%), 관리방식 비대면화(42.9%), 마케팅방식 다변화(32.6%), 품목 다변화(29.1%)의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응답>

<그림> 해외진출전략 다변화 준비 현황



대한상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전략만으로는 글로벌 경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진출 선호지역은 미주, 동남아, 유럽, 중국 順... 국가간 이동제한에 ‘지리적 편의성’ 개념 변화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진출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미주’(34.7%), ‘동남아시아’(28.6%), ‘유럽’(17.7%), ‘중국’(10.2%)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미국·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국가간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중국·동남아의 지리적 편의성은 축소됐다”면서 “반면 비대면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치가 늘면서 미주·유럽지역 등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선진시장으로의 관심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한국의 대외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27%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53%는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기업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도 해외진출 지역다변화 추세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기업 10곳 중 5곳, 코로나로 인해 해외진출 축소·보류...정상화까지 갈 길 멀지만 회복기대

한편, 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축소’(43.0%)하거나 ‘보류’(9.3%)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했다. 예상되는 코로나 회복 시기는 44.7%가 ‘1년내’, 35.7%가 ‘2년내’라고 대답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코로나 시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상황

사업축소	변화없음	사업보류	사업확장	기타	계
43.0%	37.0%	9.3%	6.0%	4.7%	100%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업의 82%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 전세계 인구의 23.1%*에 백신접종이 이뤄졌고, 백신접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블룸버그, 7.16 현재)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진출전략에 변화가 느껴진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GVC 재편과 미중 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전통적 진출 대상국이었던 중국과 동남아를 벗어나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중심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

- 지원정책 : ‘금융지원’(36%), ‘자가격리면제 등 출입국 우대’(34%), ‘정보 제공’(30%) 등 요청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지원정책 역시 ‘금융지원’(35.5%)을 꼽았으며, ‘자가격리면제 등 출입국우대’(34.0%), ‘정확·신속한 현지정보제공’(29.8%), ‘백신우선접종(19.3%)’ 등이 뒤를 따랐다.<복수응답>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현지정보 수집 어려움이 연결되면서 해외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주춤했으나 각국이 경쟁적으로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백신접종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서 정부도 기존의 정책들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통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조사개요 >

- 조사기간: 7/1(목)~7/9(금)
- 조사대상: 해외직접투자 및 수출기업 300社
-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 이메일